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부울경 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

15호

2022.03. - 04.

column 칼럼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차재근 (재)지역문화진흥원 원장
issue 이슈 1	생활문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신미영 구포이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issue 이슈 2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 김은아 밀양시문화도시센터 본부장
issue 이슈 3	ICT기술로 연대하는 부울경 문화공동체 김덕은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대표
문화+사람	부울경 문화공동체, 어떻게 가능할까? 김태훈 작가,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
정책보고서 돌아보기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 03. - 04.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5호 | 2022.03.-04.

이번 15호에서는 '부울경 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생활문화, 문화도시, 문화기술 측면에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초광역적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Contents

- | | |
|---|----------------------------|
| 03 column 칼럼 | 13 issue 이슈 3 |
|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 ICT기술로 연대하는
부울경 문화공동체 |
| 차재근 (재)지역문화진흥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김덕은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대표 |
| 07 issue 이슈 1 | 16 문화+사람 |
| “부울경 문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
- 생활문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 부울경 문화공동체,
어떻게 가능할까? |
| 신미영 구포이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 김태훈 작가,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 |
| 10 issue 이슈 2 | 20 정책보고서 돌아보기 |
|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 |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
| 김은아 밀양시문화도시센터 본부장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
| | 22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

국가균형발전과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차재근

(재)지역문화진흥원 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부·울·경 메가시티,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 구체적 실체가 없는 이 말에 대한 등장 배경과 이해가 필요한 것 같다. 우선 대한민국 헌법은 제9장(경제)에서 균형성장과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119조 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당한 소득의 분배”로 영역과 계층 간 균형을, 제123조 2항에서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조문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헌법적 가치-비록 헌법전문이나 별도의 장(국가균형발전)을 두어 좀 더 견고한 장치를 하지 못했지만-제123조 2항이 지역 간 균형발전의 헌법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정책은 2003년 참여정부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에 따라,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었으나 그나마 정책 일관성으로 유지되었던 대표적인 국가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국가 주도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지역발전 모델과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인구와 자원을 비롯한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과 경제,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포하고 균특법제정과 균특회계 도입,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계획 수립,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매년 1월 29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지정하여 균형발전이란 헌법가치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있으나, 이를 기억하는 지자체는 드물다.

역대 균형발전정책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공간분산정책 영역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특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2004.1월)하고 순차적으로 153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2019.12월)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제정(2005.3월)하고 44

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이전하고, 이와 더불어 정주 인구 23만 명 이상의 성장거점으로 혁신도시 10개를 건설하였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확충 영역으로 균특회계를 신설(2004)하여 지역특성과 우선 순위의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2010)하고, 지방소득세·소비세 등을 도입, 확대(2010)하여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지역혁신역량강화 영역이다. 지역특성을 살린 전략산업 육성과 광역경제권 정책으로 도입하여 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별 혁신협의회를 구성(2004), 주체 간 협치 역량을 향상시켰으며, 혁신역량강화와 교육여건 개선, 지역의 R&D 예산 확대를 위한 지방대학 혁신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역대 정부들의 균형발전전략은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사람·공간·산업의 3대 전략으로 갱신되어 진행되었다. 그 주요 성과를 3대 성과목표인 분권·혁신·포용에 따라 정리해 보면, 첫째 분권 영역이다. 시, 도별 혁신협의회 운용, 시도 중심의 기획이 가능한 지역혁신성장계획, 수평적 지위를 보장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의 지역 주도 추진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역균형뉴딜 정책을 확산하고, 23개 사업, 24.1조 원 규모의 예타면제와 초광역협력 프로젝트(13개) 기획 지원, 예타조사에 있어 균형발전 비중을 40%까지 높이고 균형발전지표를 도입하여 부처별 공모사업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선행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둘째로는 혁신영역이다. 14개의 국가혁신융복합클러스터를 육성하고 2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굴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으며, 국가경영그룹이 총11회의 전국경제투어를 진행하며 현장성을 높였다. 광주 형 일자리로 대변되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광주/부산/밀양/구미/군산/횡성)을 제시하고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셋째 포용영역이다. 201개 지자체 488곳의 도시재생뉴딜 사업 진행, 국정과제인 법정문화도시 30개 지정, 5개의 관광거점도시를 선정하여 매력 넘치는 지역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100원 택시 등 지역 교통체계를 보완하고 11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민이 모세혈관 가장 가까워서 문화,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3년간 32.9조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생활SOC사업은 19.9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3대 전략과 성과목표의 성과를 위한 추진과제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과 인구감소와 및 지역소멸 대응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제2, 제3의 경제·생활권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연계·협력·공유가 가능한 법(2022.1.13.지방자치법전부개정)·제도(규약의결/행정부승인/협약 등)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2020.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기획지원이 진행되었고, 2021년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에 대한 대통령 보고회를 통해 작금,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이슈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이 수면 위로 등장했다. 같은 해 4월에서 10월까지 관계부처·균형위·분권위가 참여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가 구성 운영되었고, 10월 14일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 대한 대통령 보고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 이러한 초광역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지역이 동남권으로 일컬어지는 부·울·경이다. 3개 지자체장들과 지방의회가 뜻을 모았고, 오피니언, 지역언론 등 도시경영 관계 그룹이 그 중심에서 여론을 주도했다. 그 결과 부·울·경이 마련한 부산경남울산특별연합규약(안)은 부산(4/13), 경남/울산(4/15) 의회

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를 완료, 19일 중앙정부와의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공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연합의 출범 시기는 2023년 1월 1일이다. 그동안 연합의 장을 선출하고 집행기관과 행정기구, 청사를 마련해야 하며, 각 9명씩, 27명의 연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규약이 정한 연합의 대상 업무는 각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18개 업무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3개의 업무로 특정한다.

여기서 각 지자체가 위임한 18개 업무 중,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에 관한 운영 방향과 철학, 가치에 대해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위임된 처리사무는 3가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에 따른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사무,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 먼저 고민했으면 한다.

첫째, 문예진흥법의 한계에 있다. 우리나라 제 법률 중에 가장 누더기 법률이란 오명을 가진 이 법이 가진 위상이 문화 관련 39개 법률 중 최상위 개념이 아닌, 일반 법률의 하나일 뿐이다. 법 제2조 ①의1이 정의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고전적인 문화정책의 두 축인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예술지원 정책, 그마저도 예술지원이라는 한 축만이 대상일 수 있다. 더구나 느슨한 형태의 각 “지역 간 상호협의체의 구성, 운영”이라는 제한된 사무는 처음부터 선부른 기대를 가지기엔 난망하다. 당연히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진흥법 같은 지역과 밀접한 법은 물론 문화 관련 제반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업들이 연합의 규약 안에서 통섭 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위임 사무로는 실효적 성과보다는 향후 방향성과 개선방안을 제기하는 정기적 협의체 기능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이 아직은 통합이 아닌 연합의 단계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이득이 없는 옥상옥의 장치, 대도시 중심의 또 다른 중심부의 등장 등의 비판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렇다고 통합으로 가기란 그리 만만한 과정 또한 아니다. 연합 형태인 부·울·경 특지단의 초유의 실험이 긍정적이고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느슨한 연합의 과정을 지나면서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했으면 한다. 가령, 연합의 준비과정을 소수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주도했다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는 다양한 제너럴리스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과 과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셋째, 모든 것을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수도권이란 현존 괴물의 독점에 대응하고 쟁취하기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새로운 중심부를 모색하는 것은 변증법적 지역주의의 대표적 현상임에 틀림없고, 지역 입장에서라도 미룰 수 없는 교육지책이다. 다만, 또 하나의 중심부 권력 혹은 동남권 이기주의가 태동하고, 대도시 중심부에서 밀려 다시 존재할 농산어촌(경남지역)의 소멸위기 등 제기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선 비판적 지역주의 관점의 개념이 동남권 메가시티 즉, 부울경 특지단의 경영철학에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지면상, 다음 기회로 미룬다.

넷째, 문화의 개념과 문화정책의 범위를 고전적인 정책 개념이나 규약이 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가둔다면 메가시티에서 문화정책의 역할은 매우 협소하다. 문화는 문화영역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작동되는 공통원리이다. 우리는 팬데믹이 가져온 이동제한, 고립과 외로움, 소통단절과 갈등 등으로 점증되는 지역화와 동시에, 급격한 정보시스템의 발달이 가져온 세계화와 정보사회의 병리현상인 극단성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지향점이 또 하나의 중심부를 꿈꾸는 변증법적 지역주의에 머물지 않고, 지역이 가진 자산과 특성 곧 문화다양성을 주목하되 결코 지역에 가두지 않고, 세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와 관통하게 하여 로컬 투 로컬, 글로벌이 가능하게 했던 1970년대 세계 건축계의 혜성들이 추구한 비판적 지역주의의 관점을 추구해 주기를 바란다.

다섯째, 이제 문화정책의 언어 자체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인류세의 끄트머리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현존 인류의 삶의 트렌드 변화 또한 매우 빠르다. 사회구조변화에의 대응, 문명치유, 문화적 도시재생,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탈근대적인 삶의 추구,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 동네 지식인과 사회적 여가 등 새롭게 요구되는 언어들은 결국 그 당위성을 다음 부연에 바탕한다. 인간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도래할 인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 문화일류학자들의 예측대로 유일한 통로가 문화적 방식밖에는 대안이 없다.

작년 가을, 국제심포지움에서 만난 EU의 정책고문과 OECD의 문화 및 지역발전센터장인 피에르 규 샤코는 이런 증언을 해 주었다. “EU, OECD, G20 같은 국제적 연대체는 물론 이에 속한 주요 국가들의 최상위 정책의 중심이 문화정책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닌 급격히 촉진될 일이다.” 이 말을 굳게 믿는다.

“부울경 문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 - 생활문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

신미영

구포이음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들어가며

부산 도시의 마을활동가로서 생활문화하면 떠오르는 곳이 목욕탕, 미용실, 골목점포, 근린공원이
다. 오래된 동네의 목욕탕과 미용실은 온갖 정보와 유행이 유포, 회자되는 곳이다. 패션소품에서 건강,
미용식품까지 유통되기도 하고 개인과 개인 네트워크에서 얻은 경험담이 확고한 사실로서 확산되는 장
소이다. 선출직 공무원들이 미용실과 목욕탕의 여론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최근 도시재
생, 문화예술정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리빙랩¹(Living Lab.)이 유행하고 있다. 서구에서 들어 온 리빙랩
(Living Lab.)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목욕탕, 이용원, 미용실, 골목 슈퍼(부식까지 취급하는 골목의 점포)
는 이런 기능을 넣기에 딱 적합한 곳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런 생활문화 속 리
빙랩이 위축되었지만 일상회복으로 가면 활발하게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작은 생활문화공동체
로서 동네의 10년 이상 된 미용실, 이용원, 목욕탕, 골목점포, 근린 공원을 주목하자.

#일상 속 생활문화공동체에 주목하자

오래된 동네, 쇠퇴한 마을에서 10년 이상 활동하며 매스컴이 반영하는 트렌드와는 결이 다른 중장
년층의 유행을 이런 장소에서 발견한다. SNS에 기반한 빅데이터에 포착되지 않는 실물의 세계가 바로
이런 장소들이다. 살아있는 이야기가 여과 없이 오고가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의
삶을 엿들 수 있는 곳이다. 생활문화 정책이 이런 생생한 장소에서 출발하면 어떨까하고 상상해본다.
구글(Google)에서 생활문화를 검색하면 약 144,000,000개(0.42초)가 뜬다. 그 첫줄에 생활문화를

1 생활 공간속의 실험실이란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를 가
리킨다. 개발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으로 리빙랩으로 지정된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모두가 실험 참여자이자 해법
을 찾아내야하는 주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생활문화라 하면 취미활동을 떠올리는 데 문화라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삶의 총화이다. 일상생활속의 생활문화를 들여다봐야 한다.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생활문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시민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자발적으로 생산하고 생활문화를 스스럼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환경조성을 위해 전국의 문화재단이 노력하고 있다. 도시 특성과 다양한 시민, 다양한 삶에 기초한 생활문화 활성화, 생활문화시설 활성화 지원, 생활밀착 문화예술활동 지원, 일상문화 탐색 지원, 생활문화 정책 연구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 등이 그것이다.

더 이상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큼 촘촘하게 짜여있다. 그런데 문화접근성이 낮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중장년층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듯하다. 찾아오지 않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생활문화정책을 담아내었으면 한다. 이미 주민들은 일상에서 작지만 다양한 생활문화공동체를 잘 꾸리고 있다, 다만 그것을 생활문화공동체라고 명명하지 않았을 뿐이다. 문화기획자와 정책기안자들은 이 곳에 주목할 것을 권유한다.

#지워진 세대, 50+남성군을 위한 생활문화정책이 필요하다

생활문화는 개별성, 지역성, 특이성을 가진다. 개인적이고 소비 중심적인 생활문화를 극복하고 생활문화에 지역성이라는 미세한 숨결과 공공성의 가치를 불어 넣는 매개체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정의한다면 은퇴한 50+세대 남성군에 대한 할당이 모자란다. 이들이 생활문화정책안에 포착되고 있지 않다. 이들은 산업화의 역군으로 개인의 삶을 통째로 직장에 쏟아 붓고 거의 꺾어 버려 은퇴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한 지혜로운 그룹이지만 태반은 그냥 때가 되어 현직에서 물러났다. 노후준비는 경제적인 요소만큼이나 문화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삶의 만족도는 문화적인 요소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와 다양한 관계를 형성해 온 여성들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잘 열어가고 있다. 반면 사회적 관계에 취약한 '삼식이'가 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이들은 지역문화재단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들 가운데 특히 경제적으로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는 층에 대한 생활문화지원 정책은 절실하다.

이들이 사회와 국가가 부여한 역할에서 놓여나 제2의 인생을 스스로가 선택한 개인의 취향에 기준한 새로운 역할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의 다수는 가정내에서 설 자리가 없고, 정서적 심리적으로 병들어있다고 한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직면한 문제를 모르고 있고,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술 문화로 대변되는 은퇴한 50+세대에게 그들이 까맣게 있고 있던 자신의 특징과 욕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이미 10여전부터 기초단위 50+센터를 중심으로 이 일을 해오고 있으나 부산은 5년 전 부터 움직이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공동체 차원에서 이 부분은 더욱 고민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문화는 더 다양하고 풍부해진다

2021년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공고문을 보면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사업은 생활문화를 공유하는 생활권 단위 공동체 확산을 통해 지역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삶의 문화적·사회적 가치 발견하고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일상 속 관계의 문화를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생활권 단위를 나눈다면 현재의 행정구역과 달리 확장된 생활권 단위가 정해질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단위임에도 행정구역에 의해 구분되어 나타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경계를 물고 있는 부산시와 김해시, 양산시, 울산시는 현재의 행정경계를 넘어서 해양문화권과 낙동강문화권 등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이뤄 낸 풍부한 문화자원을 토양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는 다양한 생태환경, 기후위기, 문화다양성 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거점으로서 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부울경을 한 덩어리의 지역 단위로 하여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하면 지역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가진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확장된 생활문화단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재단,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이웃 도시까지 아우르는 확장된 미션과 함께 특히 사람과 사람을 엮고 매개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쪼개고 묶는 게 가능할 것이다. 생활문화에서 강조하는 일상성, 접근성, 지속성, 자발성이 부울경 메가시티로 확장되면 더 살아날 것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도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웃과 서로 관계하고 활동하며 배우고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통적인 삶의 터전, 작은 생활문화공동체에 주목할 때 제대로 빛을 발할 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자

김은아

밀양시문화도시센터 본부장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은 2019년 3월 ‘부울경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20년 ‘부울경 발전 계획’을 수립해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 4월 18일 정부(행정안전부)는 부울경 특별연 합의 기본 규범인 규약을 승인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가 여전히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음을 볼 때, 기존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사실상 한계에 다달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비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공모 사업 등에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끼리 각자 경쟁하기 바쁘다. 이는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경쟁력의 큰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공동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 경제, 문화, 행정공동체를 형성하여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함께 생활하고 성장하는 초광역 단일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부울경의 경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의 광역교통망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며, 산업 연계 또한 긴밀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열악한 광역교통망을 갖고 있지만 부울경 내부 통행을 보여줘 생활권 단일화의 잠재력이 있다. 또한 오랫동안 부울경 지역 현안이었던 식수 문제, 쓰레기 문제를 비롯하여 미세먼지 문제나 신재생에너지사업, 문화도시 등 부울경의 초광역적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대사회는 경제성장이 중시되던 과거에 비해 삶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사회화 기능, 욕구충족 기능 등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능의 문화로 확장되고 있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 행복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움직일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은 문화를 향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있다. 모든 계층의 시민이 활발한 문화활동을 진행된다면 문화가 사회적 자

본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문화의 사회적 가치도 형성될 것이다. 특히 문화도시사업 추진에 있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매김한 문화의 다양성은 이제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의 문화도시사업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

문화도시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조성·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이다.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현재 부울경에는 3개의 법정 문화도시(1차 부산 영도구, 2차 경남 김해시, 3차 경남 밀양시)와 4차 법정문화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3개의 예비문화도시(울산광역시, 부산 북구, 경남 창원시) 그리고 5차 예비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가 있다. 경남의 경우,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2020년 ‘경남 문화도시 네트워크(김해시, 밀양시, 창원시, 진주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를 결성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도 이와 같은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구조를 갖추었으면 한다.

문화도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간, 지자체별 수행주체 간 상호협력과 상생을 위한 공동 활동이 필요하다. 문화도시 준비기간과 예비기간, 본도시로 이어지는 3년 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업과 그 지역만의 특성에 맞춰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문화도시 상생기관으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지자체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진된 공동체적 사업의 성과로 양성된 문화도시 전문인력을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부울경 타도시와 연결하게 된다면 전문인력의 부재로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문화도시사업 진입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

2022년 5차 문화도시 예비도시 선정을 끝으로 문화도시 1.0이 종료되고 2023년 차기 정부에서 문화도시 2.0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운 정부의 문화도시 계획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지자체들이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울경 전체의 문화적 가치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회복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상생, 협력적 구조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부울경 문화도시 상생협의체의 구성원은 지역 간의 차이를 갖지 않는 개인, 지역주민, 단체 등 누구든지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이를 수 있다. 함께 이루어진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넘어 부울경 경제의 발전까지 나아갈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 간 연계 활동을 통하여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활발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 다채롭고 활발한 활동의 문화공동체가 많아지면 부울경의 경제는 빠르게 움직이고 지역주민들과 꾸준한 문화활동 또한 이어갈 수 있다. 변화한 사회환경에 따라 지역주민의 선호하는 문화콘텐츠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소외지역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며,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을 지역의 단체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함께 공유해 풀어간다면 상호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될 것이라 생각된다. 지역문화라고 해서 타도시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역

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갈등을 서로의 입장에서 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문화도시 2.0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들의 문화도시사업 추진 5년 이후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와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된 군 단위 소규모 지자체의 문화도시 진입 문제의 개선(문화마을 사업의 부활) 등과 같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역할과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문화도시 상생협의체가 지역문화 생태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삶의 양식,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장경로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지역균형발전과 삶의 안전망에 도움이 되어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넘어서는 메가시티의 규모를 갖춘 삶터가 되기를 바란다.

ICT기술로 연대하는 부울경 문화공동체

김덕은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대표

ICT 기술로 연대하는 부울경 문화공동체! 어떤 분은 문화까지도 기술이 점령한다고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이미 SNS를 통해 다른 이들과 연대하고 내 행사를 알리며, 심지어 미술가들은 디지털 아트로 본인의 작품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는 이미 그 세계에 속해 있으며 누군가는 거기서 무궁무진한 창조성을 발견하고 있다. 필자는 대학 졸업 후 약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종사해 왔다. 그러다 2015년부터 개인적 바람으로 ICT 기술을 문화예술 분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왔다. 2017년부터는 관련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그 일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문화예술과 ICT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해왔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이를 통해 본 ICT기술과 문화예술의 결합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문화공동체를 추진하는데도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개인적으로 문화의 세 가지 주체를 꼽는다면 '사람', '공간',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문화에서 활동은 주로 이벤트-행사로 나타난다. 공연, 전시, 축제, 체험, 강연, 포럼 등이다. 이런 문화 활동 정보 즉, 행사정보를 공유한다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행사정보를 알면 그 행사에 관련된 사람(단체), 공간정보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부·울·경 지역의 행사정보를 모니터링 해보면 부·울·경 지역에 어떤 문화 활동가(단체)가 있고 어떤 공간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연대하고 싶은 단체를 찾을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 정보는 문화기획자에게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또 다른 영감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드러내고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드러내고 공유하는 것에 가장 특화된 것이 ICT 기술이다.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부·울·경 지역의 문화행사 정보를 폭넓게 공유할 수 있다면, 연대할 수 있는 부·울·경 지역의 문화단

체를 찾기도 쉬워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울·경 지역의 문화공간을 찾기도 쉬워진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부산의 지역 행사정보를 공유하는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들려는 시도는 몇 번 있었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서비스는 마땅히 없다. 지역 콘텐츠를 다루는 SNS 채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SNS는 지역성이 아니라 관계성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지역의 관점에서 행사정보를 찾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울·경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부·울·경의 문화행사정보를 공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은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앱이나 웹 같은 ICT 기술은 대중의 피드백을 먹고 점점 진화하는 생물 같은 것이다. 정해진 기간에 용역비만 받고 끝내는 공공사업방식의 추진 보다는 오랜 기간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공은 이런 민간기업·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적극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자.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만나고 여기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은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 가장 초석이 되는 요소이다.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을수록 전체 공동체를 구성하는 단위 공동체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 공간도 우선은 드러내고 공유해야 한다. 즉,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도 앞서 언급했듯이 앱이나 웹 같은 ICT 기술이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내 근처의 공간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목적에 맞는 공간정보를 손쉽게 찾고 예약할 수도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직은 부·울·경 지역의 공간정보가 수도권 대비 그리 많이 수집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공간을 온라인 3D VR 공간으로 복제해주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실 속 실제 공간을 3차원 촬영하여 디지털 쌍둥이 공간으로 만드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개념의 기술들이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오프라인 공간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에서 공간을 걸어보고 둘러볼 수 있다. 심지어 원하는 부분의 치수도 잴 수 있고 의자, 테이블, 현수막, 무대를 가상으로 설치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문화행사 기획자나 관람객으로서는 가능한 한 좀 더 상세한 공간의 특성을 알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행사 기획자는 상세한 공간의 구조를 알고 싶고, 동선까지도 점검해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의자, 테이블 등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점검해보고 싶어 한다. 관객은 어떤 자리가 좋을지? 그 자리에서 무대가 어떻게 보일지도 너무 궁금하다. 노약자와 장애인 분들은 이런 정보가 더더욱 중요하다. 장애인 주차장 위치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차장으로부터 휠체어 등을 타고 행사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어떻게 되는지? 지금처럼 홈페이지의 사진 몇 장 만으로는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부·울·경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나아가 공간정보를 단순한 텍스트나 이미지가 아닌 3D VR 등으로 좀 더 상세하고 직관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공동체를 만드는데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이긴 하지만 실제 공간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친근함과 소속감을 준다. 이런 면이 기존 문자채팅, 화상채팅과는 또 다른 매력을 주고 여기에 MZ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다. 요즘에는 축구 경기도 메타버스 공간에 같이 모여서 본다. 이는 기존 세대가 축구 경기를 맥줏집에서 함께 보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욕구다. 메타버스 화면도 핸드폰으로 보는데 그 화면 속의 더 작은 TV로 축구중계를 본다. 하니 언뜻 이해가 안 되지만, 중계화면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문화예술의 특징을 생각하면 앞으로 메타버스의 활용은 무궁무진할 것 같다.

마지막 '사람'에 대해 살펴보자.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나와 협업하고 연대할 수 있는 다른 문화 활동가(단체)를 찾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예술가가 엔지니어와 협력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예술의 방향이 정적 예술에서 점점 쌍방향-디지털 예술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은 이미 SNS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앞서 언급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 앱을 활용하여 부울경 문화공동체에 관한 세미나, 포럼, 모임 등을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 앞서 언급했듯이 메타버스는 참여자 간의 친근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이다. 메타버스에서 포럼이나 모임을 한다면 엔지니어, 마케터와 같은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참여도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문화에 관련된 사람, 공간, 활동이 ICT 기술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기존에 생각하는 예술, 기존에 생각하는 연대방식, 기존에 생각하던 공간개념. 기술은 절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발전할 수 없다. 최근 나오는 메타버스, VR, AR 기술들도 결국은 인간이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은 본성을 잘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부·울·경 문화공동체를 꿈꾸고 추진하는 많은 분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부울경 문화공동체, 어떻게 가능할까?

김태훈

작가,
지역스토리텔링연구소장

지난 4월 19일 대한민국에서 인구 800만 명의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전대미문의 메가시티가 탄생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019년말 "권역별 메가시티로 수도권 공화국을 극복하자"고 주장한지 3년 째 되는 해에 일궈낸 구체적인 성과다. '지방소멸'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2014년이다. 일본에서 발표된 '마스다 보고서'가 출처인데, 그는 2040년까지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기초단체 869곳(전체 1,741곳)을 꼽았다. 마스다는 "도쿄로 집중되는 극점사회는 인구의 블랙홀이 되어 결국 전체 인구가 급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35.2%(2020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50.2%(2020년)보다 15%나 적다. 그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심각하고, 그래서 메가시티 정책은 특단의 대책인 동시에 공여지책인 측면도 없지 않다.

문화정체성의 기본, 스토리 공동체

메가시티의 기본 개념은 '또 하나의 수도권'이다. 부산을 서울 삼고 울산을 인천 삼고 경남을 경기 삼는 일종의 미래링 전략으로, 수도권 못지 않은 중력을 만들어내자는 것이다. 관건은 중력을 일으킬 구심점이다. 행정력을 발동하기 위한 구심점은 이번에 만들어졌다. 경제력을 일으키기 위한 구심점은 부울경 전역에 포진하고 있는 산업기지들을 잘 조직하고 혁신하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문화력, 즉 소프트파워다. '우리는 한 지역'이라는 정서적 공감대, 문화적인 정체성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가능할까?

당장 메가시티를 부르는 이름부터 지역마다 다르다. 부산은 '부울경', 울산은 '울부경', 경남은 '경부울'이라고 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헌법재판소가 관습법 개념을 꺼내들 정도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서울 중심의 '기억 자산'이 존재하지만, 부울경 지역은 깨끗한 백지와 다를 바가 없다. 길게 보되 흐트러지지 않을 통합의 방향성이 절실하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2월 28일 영국언론 <가디언>에 “푸틴은 왜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거기에서 유발 하라리는 푸틴이 전투에선 이길지 몰라도 전쟁에선 패배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유는 ‘스토리’ 때문이다. 전쟁과 함께 우크라이나인들은 당장은 물론 수십 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쌓아 가고 있다. 전쟁의 공포에도 수도를 떠나지 않는 대통령, 경고하는 러시아 군함에 “꺼져!”를 외치고 장렬하게 전사한 스네이크섬 초병, 맨몸으로 전차의 행진을 막은 시골 할머니 등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나라로 결집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접착제라는 것이다.

그는 칼럼에서 “국가는 궁극적으로 이야기를 기반으로 세워진다”고 정의했다. 이 정의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다. 메가시티 또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은 ‘스토리’일 수밖에 없다. 부울경 메가시티 시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또 가슴 깊이 간직할 공통의 스토리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없거나 부족하다면 어떻게 창조해내야 할지 고민하고, 시도하고, 반복해야 한다.

사실 연합체를 만들 때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대단한 발견은 아니다. 1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등 기초단체 세 곳을 모아 출범한 통합창원시도 공통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당시 정부는 프로야구단을 유치했고(스포츠토퀴), 세종 때 좌상을 지낸 최윤덕 장상의 동상(역사 인물)을 시청 앞에 세웠으며, 유명 작곡가에게 의뢰해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시민에게 보급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야구장 신축 문제로 세 도시 사이에 갈등만 키웠고, 최윤덕 장상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밑바닥 수준이며, 그 특별한 노래의 유튜브 조회수는 11년이 다 돼가지만 3,000회를 겨우 넘겼다.

스토리 공동체는 당위성만 갖고 구호를 외친다고 형성되는 게 아니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머리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연결된 투명한 시대에 사람 마음 얻기가 쉬울 수 없다. 그만큼 비전이 뚜렷해야 하고 투자도 뒷받침돼야 하며 실행 과정도 섬세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어느날 갑자기 한지붕 아래 살게 된 부산, 울산, 경남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공유하면서 공통의 기억과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부울경 특별연합은 어디에서 통합의 스토리텔링을 찾아야 할까? 세 지역 모두 경상남도라는 뿌리를 갖고 있지만 부산은 1963년 직할시로 분리됐고, 울산은 1997년에 광역시로 독립했다. 행정적인 분리도 장애물이지만 각 지역 생활권이 따로 형성됐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다.

○ 수도권이라는 빌런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스토리텔링이 흥미를 끌려면 선악구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부울경 특별연합에게는 수도권이라는 확실한 빌런(악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원래 민족정체성이란 것도 내부의 원인과 역량보다는 이민족의 침략 같은 외부요인에 빚진 경우가 많다. 우리가 아는 유럽의 민족들 상당수가 9세기부터 시작된 바이킹의 침략 시대 때 형성된 것은 우연이 아니

다. 따라서 수도권권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집요하게 천착하면서 부울경의 대응 노력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스토리텔링은 초창기 특별연합의 정서를 묶어주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 이야기와 영웅을 탄생시키는 플롯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플롯”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등장시켜도 플롯이 잘못 구성되면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다. 도시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 성격이 일상적일 때 새로운 이야기나 영웅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새 영웅을 탄생시키려면 특별한 플롯이 필요하다. 방송국이 오디션 포맷을 선호하는 이유는 영웅을 탄생시키는 플롯이기 때문이다. 메가시티 안에서 그런 플롯들을 다양하게 설계하고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스포츠’는 아직 굽어보지 않은 복권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체육센터와 운동장에서 스포츠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 어떤 영웅도, 스토리도 탄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플롯을 적용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당장이라도 시정부가 앞장서서 선수와 경기 기록을 관리하고 종목별 리그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보자. 어느 스포츠클럽이 부울경에서 최고인지 겨루는 그림을 만들자. 합을 겨루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웅과 감동의 스토리들이 쏟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플롯을 스포츠는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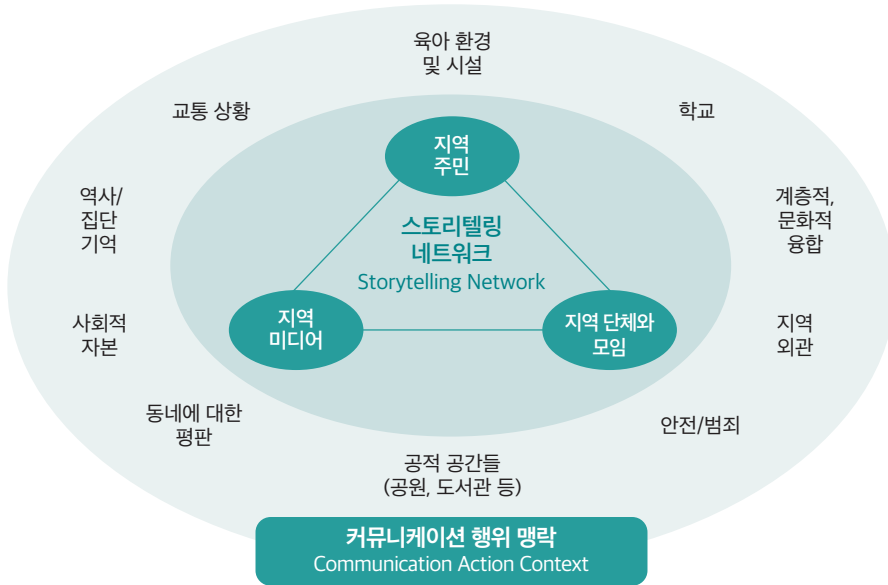
○ 결국 사람 이야기

사람들은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즐거워 한다. 하루 이야기하는 시간 중 75%를 사람 이야기에 할애하고, 그 중에 절반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흥미로운 조사 결과도 있다. 결국 영웅이든 악당이든 권역 내 시민들이 함께 기억할 인물이 얼마나 있느냐가 스토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문화정체성 관점에서 보자면, 메가시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지역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가가 관건이다. 지역 내에서 스타가 많이 등장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도시 플롯’은 스타들이 탄생하는 등용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추가로 발굴해야 할 사람 이야기 ‘광산’이 있다. 바로 지역 정치와 시사 분야다. 전국 규모의 정치와 시사 인물이야기는 차고 넘치는데 지역 차원의 정치와 시사 스토리텔링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 기초 의원과 광역 의원의 활약, 그리고 이해 관계를 둘러싼 세력간 경쟁 등이 지역민의 일상 속에서 화제가 될 수 있게 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스토리 확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스토리를 만드는 활동 못지 않게 그것을 의미있게 확산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의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서울과는 더없이 밀착됐지만, 그곳 내부는 더없이 성긴 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 연남동 이야기는 웬만한 지역 사람들이 다 알아도 울산 태화동 이야기는 울산시민 말고는 알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이 구조를 획기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지역에서 이야기 콘텐츠를 생산하는 노력을 아무리 기울여도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이론(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ory)’을 도시 차원에 적용해보고 평가와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김용찬 교수가 개발한 이 이론은 도시의 커뮤니케이션 하부 구조에 따라 도시 공동체의 스토리텔링 활동이 영향을 받고, 그 결과 시민의 참여도가 달라진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시민이 도시 공동체에 소속감과 결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가 건강하게 구축되고,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 활동이 활발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시 지역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김용찬)]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는 도로나 아파트처럼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처럼 테크놀로지가 발달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는 다분히 문화적인 결과물이다. 오랫동안 공동체에 축적되고 내재된 역사와 규범이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골간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들은 안타깝게도 그 하부구조가 중앙 권력이나 시장 권력에 의해 훼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회복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권으로 쏠리는 중력이 워낙 강해 지역 내 하부구조는 불완전하고 부실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은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를 밑바닥부터 새롭게 설계하고 건설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세 개 지자체 주민들의 생각과 비전을 한 방향으로 통합하고, 각 지역이 가진 자원과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열리고 있다. 문화정체성은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공산품이 아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의 스토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정한 방향으로 차곡차곡 쌓였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문화정체성은 결과가 아닌 ‘여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세 개 지자체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여정, 공통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여정, 공통의 기억을 축적하는 여정이어야 한다.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는 지난 2021년, 부산시민의 심층적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만 15세 이상 부산시민 2,000명과 문화관심집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부산시민의 삶에 문화예술이 차지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문화예술활동 양상을 담아냈다. 이번 '정책보고서 톡아보기' 코너에서는, 동 연구의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예술 즐기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우리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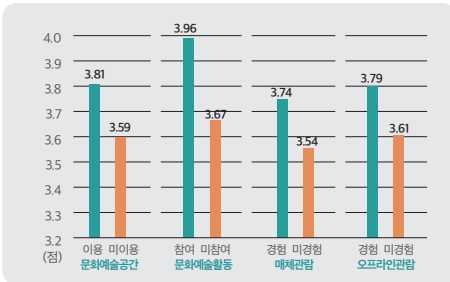
- 문화예술관람과 활동 참여 경험, 문화예술공간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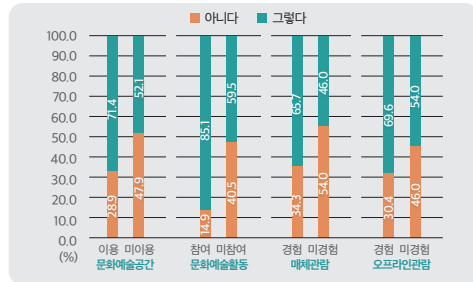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활동을 선호하고,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콘텐츠를 탐방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사귄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문화예술활동 제한으로 우울감을 많이 느꼈고,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여가생활 만족도 (6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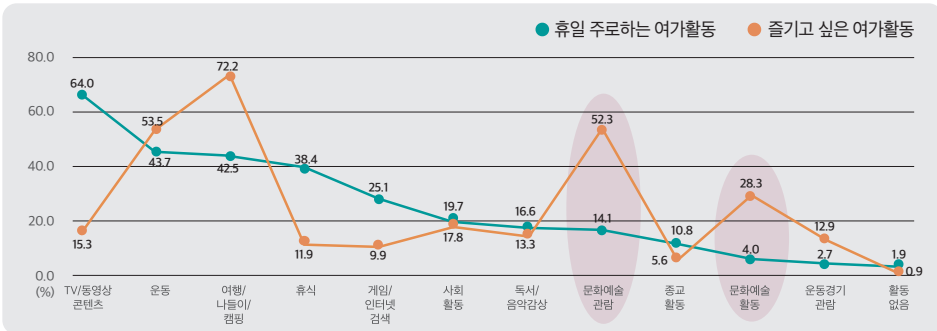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부산시민이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 “문화예술”

- 현재 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즐기고 싶은 여가활동은

> '여행/나들이/캠핑'에 이어 '문화예술관람'과 '문화예술활동'이 상위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산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 부산지역 동서 간 문화격차 해결

>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공간의 충분성 및 참여 가능한 거주지 인근 문화예술행사/프로그램의 충분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기장권/동래권, 강서권 거주자 간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관계없이 부산시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분포 불균형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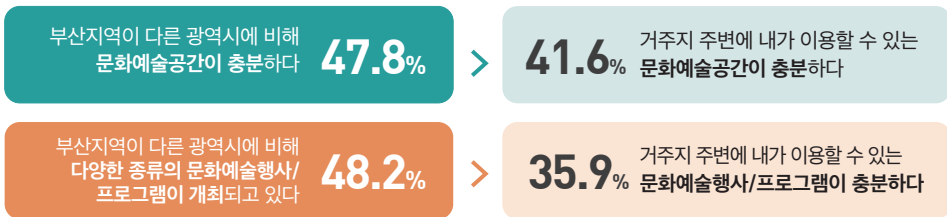
- 부산 문화예술 정보 취득 경로 홍보

> 문화예술관람·활동·공간이용 시 발생하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관련정보 부족'이 1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웹사이트, SNS, 주변인 등 문화예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와 관련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활권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15분 거리 문화도시' 조성

- '슬세권' 문화예술활동, 공간의 중요성

> 부산지역 전체 문화환경에 비해, 거주지 주변 문화환경 평가의 긍정응답률은 다소 낮은 편으로 조사되어, 생활권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환경 조성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민 '모두'가 즐기는 문화예술 :

베리어프리 환경 조성, 세대별 맞춤형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응답자 중

- > 장애인 : 최근 1년 이내 공공도서관, 서점, 복합문화공간 이용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 3040대 :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여가시간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 70세↑ : 타 연령대에 비해 문화예술행사/프로그램 정보 취득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 > 15~19세 : 부산지역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1 부산시민 문화예술활동 트렌드 조사>의 보다 자세한 연구 내용은 부산문화재단 전자아카이브 (<http://e-archive.bs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2.03. - 04.

부산문화재단

- **광안대교 바라보며 바닷 빛 조선통신사 축제 즐긴다(4.11)**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오는 5월 5일부터 8일까지 총 4일간 옹호별빛공원에서 조선통신사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며,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들로 채워진다.

- **[문화도시 부산 어젠다] Restart-up! 부산, 부산문화(4.14)**

재단은 부산MBC와 협력하여 4월 20일 오후 2시, F1963 석천홀에서 '다시 새로운 부산문화의 바람이 분다'라는 주제로 [문화도시 부산 어젠다] 「Restart-up! 부산, 부산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문화예술교육 총서 3, 4권 발간(4.20)**

재단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교육의 융합, 공간과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등을 통해 들여다본 문화예술교육 총서 3, 4권을 발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제5차 문화도시를 찾습니다(3.3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3월 31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4.19)**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과 함께 4월 21일(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지역 주민들과 더욱 밀접한 공공시설과 생활 공간에서 미술품을 전시하세요(3.18)**

문체부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문영호)와 함께 3월 18일(금)부터 4월 18일(월)까지 전국의 공공시설, 국민안심병원을 포함한 공공·의료시설과 작은미술관,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에서 미술품을 전시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민과 함께 나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기록(4.11)**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가능한 대국민 투표는 <코로나19, 예술로 기록> 사업에 참여한 974건의 작품 가운데 전문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총 50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국민 투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작품 가운데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후대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정신을 알리고 예술이 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대구문화재단

- **대구문화재단, 지역연극·뮤지컬 콘텐츠 발굴과 극작가 양성을 위한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4.20)**

(재)대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승익)은 오는 5월 16일(월)부터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를 진행한다. '연극·뮤지컬 대본 공모'는 미 발표 순수 창작 작품 공모를 통해 지역의 우수 작품 제작 기반을 조성하고, 무대화가 가능한 지역 공연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인천문화재단

- **인천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 사업 <음악낭독극 축제> 개최(3.17)**

(재)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에서는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인천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음악낭독극 축제>를 진행한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주민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문화우물' 마을 공동체 지원(4.11)**

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영덕)은 2022년 문화우물사업에 참여할 마을 공동체를 오는 4월 26일(화)까지 모집한다. 문화우물 사업은 지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 하여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권 문화공동체를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재단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업무 협약 체결(4.19)**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이사장 박인자)와 파킨슨 환우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 <댄스 포 피디(Dance for PD)>의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9일(화)에 체결했다.

전라남도문화재단

- **사회적 협력예술 프로젝트 '바람의 노래' 추진(4.6)**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선출)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아르코 공공예술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해양, 환경,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전 지구적 담론을 제기하는 공공 예술 활동을 전남 안도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15호

2022.03.- 04.



ISSN 2713-4113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발행일 2022. 4. 29. **발행인** 이미연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84-1(감만동) TEL051-745-7205~8
www.bscaf.or.kr **편집위원** 김경화 서승우 송교성 이지훈 **편집기획** 조정윤 김수정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